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Stress Coping, Resilience and Relationship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장희성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백다정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강승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전홍철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석지윤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구승석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정윤정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최은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희현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다혜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김진실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한희수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정선경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지도교수				

초록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07일까지 시행되었으며, 연구의 대상은 C 지역에 소재하는 간호학과 학생 146명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146명의 자료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성 지표인 내향형(I)과 외향형(E)으로 구분하였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T=2.201, p<.01$), 회복 탄력성($T=5.012, p<.001$), 대인관계능력($T=4.516,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2.76(SD 0.33)으로 I의 평균 2.62(SD 0.3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탄력성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4.16(SD 0.40)으로 I의 평균 3.81(SD 0.3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3.96(SD 0.49)으로 I의 평균 3.57(SD 0.4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와 E로 구분하여 각 집단에서 회복 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종속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성격유형 I가 E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 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이 낮으므로 내향형 대상자를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로, 대학생들은 대학 시절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발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Park & Seo, 2006). 발달단계상 대학생들은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기적 발달단계에 있으며 학업, 자아정체감 확립, 장래에 대한 대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Han & Namgung, 2008). 또한 대학생활에서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이수할 과목의 선택, 시간관리, 동아리 활동, 교수나 교우들과의 인간관계, 진로선택에 따른 취업준비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

도록 요구받는다(Yang, 2003).

간호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전문가적 소양과 간호 지식을 배우고, 임상상황에서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Park & Jeong, 2013). 또한 간호 대학생은 다른 전공 학생에 비해 다양한 현장에서 실습을 하며(Kwon, 2002), 병원이라면 친숙하지 못한 환경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의료인과 상호관계를 하면서 간호를 실제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Park, Kim, 2000).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인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는 현재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분야이며, 간호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능력 및 적응에 관한 여러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Park, 2011). 인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Kim YH, 2000). 환경과의 상호작용 반응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 요소로 개인의 성격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Jung(1936)은 인간은 성격의 경향성을 갖고 태어나며 이런 성격 경향성이 환경의 여러 자극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성격 유형체계를 구성한다고 하였고, Myers(1987)에 의하면 성격은 선천적 심리기능의 다양한 표현이므로 심리기능의 역동에 따라 일반적 특성, 적응방식, 대처방식이 달라진다고 하였다(Kim JT, 1995).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Kim YH, 2000; Kim JI, 2004; Jung HK 2007; Park SM, 2007; Nam SH, 2008; Kang MJ, 2010)에서는 성격이 개인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은 물론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유머감각, 자기효능감 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탈피해 정신적 평안함과 안녕을 찾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끝내기 위한 행동이 곧 대처이다(An, 2014). 즉,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zarus, 1984; Lee, 2010).

회복탄력성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Li, 2008; Nam IS, 2010).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Rutter, 1985),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꾸는 능력(Polk, 1997),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둔 개념(Hong ES, 2006) 등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을 포함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될 때, 이에 적절히 대처하여 극복해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특성이다(Dyer, 1996).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회복탄력성 정도에 따라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ong, 2009),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여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 Park, 2017), 간호사의 역할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은 간호사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oon, Park, Jeong, 2013).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를 위하여 회복탄력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은 물리적, 심리적 환경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고유한 개인적 특질로 개인의 대인관계 능력은 개인이 집단에의 적응 시, 문제 발생 시 대처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알롬, 1985). 간호사는 직무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Hong, 2002). 간호대학생은 다면적 임상환경에서 전문적 지식, 임상실습경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요구받는다. 간호사는 대인관계 문제와 임상환경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1999; Park & Kim, 2000). 졸업 후 초임 발령 1~4년 사이에 상당수의 간호사가 이직을 하고 있으며(Kang, 1986; Lee, 1994), 이직의 주요 원인은 대인관계의 문제 즉, 상호협력의 어려움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로 나타났다(Kim, 1995; Kim & Park, 1991). 이처럼 대인관계능력은 졸업 전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대인관계능력이 잘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 자신을 손상함 없이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킨다(Kim, 1993). 조직 구성원의 만족도 연구에서도 상호간의 대인관계가 원만한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직무에 대한 만족이 높았으며(Lim, 2008), 대인관계의 질은 개인 및 조직건강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Cooper, Marshall, 1986). 이처럼 대인관계능력은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개인의 대인관계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최근 개인의 성격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MBTI 성격유형도구를 사용하고 있다(Oh, 1993; Ryu, 1994; Sim, 1995; Park, 1996; Cho, 1997; Sim과 Kim, 1997). MBTI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성격유형도구로서 이를 활용할 경우 성격유형에 따른 특성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객관적으로 돕고(Kim, 1990), 집단원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역동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Kim, 2010). 또한 MBTI는 성격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며(Kim, 1990),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향상, 학습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1993; Ryu, 1994; Sim, 1995; Park, 1996; Cho, 1997; Sim과 Kim, 1997). 지금까지 MBTI를 활용하여 대인관계,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가 있었다. MBTI 성격유형을 간호대학생에 적용함으로써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는 것은 이후 간호대학생의 적응능력과 간호사의 적응능력강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Kwon, 2002).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MBTI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확인하고, 각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위 연구의 대상은 C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4년제 간호학의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간호학생으로 147명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 후 응답이 불성실한 1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46명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의 검정력 확보를 위한 대상자 수는 G* Power 3.1.9.7 analysis software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3, 검정력($1-\beta$) .95 최소 표본수 138명으로 산출되었고, 위 연구의 대상자수는 146명으로 필요한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성격유형 MBTI

이론적 정의: 성격유형 MBTI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성격이라고 하며, 이러한 성격을 유사함이나 친근함의 정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것이다(표준국어대사전, 1999).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Jung의 심리유형이론을 바탕으로 Isabel Myers와 Catherine Briggs에 의해 제작되고,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를 사용해 나타난 자가보고식 성격유형을 말한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론적 정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섰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적·외적 요구를 관리하고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지된 개인과 환경간의 요구해결과 그로 인해 발생된 감정을 조절하려는 과정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척도를 박주영(1995)이 하위차원에 따라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의 4가지 하위 영역별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회복탄력성

이론적 정의 : 회복탄력성이란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여 이전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추상적인 인지 개념으로, 대처기전을 사용하여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하려는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Lin et al., 2013).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dson (2003)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백현숙 등 (2010)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극복력 측정도구 (K-CD-RISC)를 토대로 박미미와 박지원(2016)이 개발한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의 점수를 의미한다.

4) 대인관계능력

이론적 정의 : 대인관계능력은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소수인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 1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느끼고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Heider, 1964).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Schlein과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대인관계 변화 척도)을 Lee와 Mun(1982)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하여 사용한 대인관계 척도 점수를 의미한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07일까지 C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 동의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온라인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주소 링크를 통해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 작성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내용 중 MBTI 성격유형은 MBTI 검사결과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MBTI 유형 총 두 가지를 기재하였다. 설문응답 최종 인원은 147명으로 이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탈락된 1부를 제외한 146부 모두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 과정, 자발적 참여를 설명하고 설문 참여 도중이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연구보고서 작성 후 추후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임을 기재한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후 점수화했다.

6. 자료 분석 방법

위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을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분석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MBTI중 사회성지표(E,I)로 나누어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t-test로 분석하였다.
4.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관계능력,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MBTI중 사회성지표(E,I)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1.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27명(18.5%), 여자가 119명(81.5%)으로 나타났다. 남성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2.69(SD=0.40), 여성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2.66(SD=0.37)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289$) 남성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3(SD=0.44), 여성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1(SD=0.42)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095$) 남성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0(SD=0.53), 여성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9(SD=0.49)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768$)

학년은 4학년이 56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27명(18.5%)으로 가장 적었다. 1학년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2.65(SD=0.37), 2학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8(SD=0.46), 3학년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2.54(SD=0.36), 4학년에서 스트레스대처방식의 평균은 2.73(SD=0.36)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157$) 1학년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1(SD=0.29), 2학년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4.00(SD=0.47), 3학년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2(SD=0.35), 4학년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8(SD=0.49)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723$) 1학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5(SD=0.39), 2학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4(SD=0.57), 3학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3(SD=0.47), 4학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7(SD=0.53)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748$)

종교는 없음이 92명(63.0%), 기독교 30명(20.5%), 천주교 14명(9.6%), 불교 7명(4.8%), 기타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7(SD=0.37), 천주교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55(SD=0.41), 불교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82(SD=0.41), 기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45(SD=0.37) 없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7(SD=0.37)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498$) 기독교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4.04(SD=0.48), 천주교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8(SD=0.33), 불교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61(SD=0.48), 기타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4.00(SD=0.50), 없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0(SD=0.40)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155$) 기독교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83(SD=0.49), 천주교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54(SD=0.54), 불교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2(SD=0.43), 기타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89(SD=0.32) 없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7(SD=0.50)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361$)

거주형태는 통학이 74명(5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자취, 하숙이 각 1명(0.7%)으로 적게 나타났다. 기숙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8(SD=0.27), 통학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7(SD=0.43), 자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6(SD=0.32), 친구와 자취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04, 하숙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75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69$) 기숙사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5(SD=0.54), 통학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0(SD=0.43), 자취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7(SD=0.42), 친구와 자취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43, 하숙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73으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69$) 기숙사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5(SD=0.46), 통학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7(SD=0.55), 자취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3(SD=0.44), 친구와 자취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52, 하숙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69$) 응답자의 평균 성적은 3.5~4.0 미만이 55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2.5~3.0 미만이 13명(8.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2.5~3.0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58(SD=0.31), 3.0~3.5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59(SD=0.40), 3.5~4.0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71(SD=0.38), 4.0이상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71(SD=0.34)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328$) 2.5~3.0미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69(SD=0.36), 3.0~3.5미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0(SD=0.40), 3.5~4.0미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8(SD=0.40), 4.0이상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4.09(SD=0.44)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p=0.003$)을 나타냈다. 2.5~3.0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6(SD=0.40), 3.0~3.5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1(SD=0.50), 3.5~4.0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6(SD=0.51), 4.0이상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1(SD=0.52)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16$)

연애 경험은 있는 사람이 78명(53.4%), 없는 사람이 68명(46.6%)으로 나타났다.'있다'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9(SD=0.38), '없다'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3(SD=0.37)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404$) '있다'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96(SD=0.45), '없다'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6(SD=0.38)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153$) '있다'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7(SD=0.51), '없다'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60(SD=0.47)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034$)

한달 용돈은 4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62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10~20만원 미만 받는 사람이 12명(8.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73(SD=0.55), 10~20만원 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42(SD=0.32), 20~30만원 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9(SD=0.32), 30~40만원 미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7(SD=0.41), 40만원 이상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2.67(SD=0.31)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222$) 68(SD=0.61), 10~20만원 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45(SD=0.45), 20~30만원 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2(SD=0.45), 30~40만원 미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4(SD=0.51), 40만원 이상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3.70(SD=0.49)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513$)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6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3.69(SD=.97)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는 사람이 135명(92.5%), 없는 사람이 11명(7.5%)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3.92(SD=0.42), 경험 없는 사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3.93(SD=0.46)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904$)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사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68(SD=0.51), 경험 없는 사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87(SD=0.35)으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216$) 아르바이트 경험 있는 사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66(SD=0.37), 경험 없는 사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68(SD=0.44)으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856$).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는 사람이 120명(82.2%), 없는 사람이 26명(17.8%)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3.95(SD=0.42), 경험 없는 사람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은 3.78(SD=0.40)으로 나타났지만 스트레스 대처방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075$)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72(SD=0.50), 경험 없는 사람에서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56(SD=0.49)으로 나타났지만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

다.($p=0.140$)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67($SD=0.38$), 경험 없는 사람에서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2.63($SD=0.36$)으로 나타났지만 대인관계능력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612$).

표1.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일반적 특성 (N=146)

구분	N(%)	스트레스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M±SD	t/F	M±SD	t/F	M±SD	t/F	
성별	남	27(18.5)	2.69±.40	.380(.289)	3.93±.44	.160(.095)	3.70±.53	.078(.768)
	여	119(81.5)	2.66±.37		3.91±.42		3.69±.49	
학년	1학년	28(19.2)	2.65±.37	1.76(.157)	3.91±.29	.443(.723)	3.75±.39	.407(.748)
	2학년	27(18.5)	2.68±.46		4.00±.47		3.74±.57	
	3학년	35(24.0)	2.54±.36		3.92±.35		3.63±.47	
	4학년	56(38.4)	2.73±.36		3.88±.49		3.67±.53	
종교	기독교	30(20.5)	2.67±.37	.847(.498)	4.04±.48	1.69(.155)	3.83±.49	1.09(.361)
	천주교	14(9.6)	2.55±.41		3.88±.33		3.54±.54	
	불교	7(4.8)	2.82±.41		3.61±.48		3.62±.43	
	기타	3(2.1)	2.45±.37		4.00±.50		3.89±.32	
	없음	92(63.0)	2.67±.37		3.90±.40		3.67±.50	
거주형태	기숙사	18(12.3)	2.68±.27	.701(.592)	3.85±.54	.735(.569)	3.65±.46	.257(.569)
	통학	74(50.7)	2.67±.43		3.90±.43		3.67±.55	
	자취	52(35.6)	2.66±.32		3.97±.42		3.73±.44	
	친구와 자취	1(7)	2.04±.0		3.43±.0		3.52±.0	
	하숙	1(7)	2.75±.0		3.73±.0		4.00±.	
평균성적	2.5~3.0 미만	13(8.9)	2.58±.31	1.15(.328)	3.69±.36	4.76(.003)	3.66±.40	.764(.516)
	3.0~3.5 미만	48(32.9)	2.59±.40		3.80±.40		3.61±.50	
	3.5~4.0 미만	55(37.7)	2.71±.38		3.98±.40		3.76±.51	
	4.0 이상	30(20.5)	2.71±.34		4.09±.44		3.71±.52	
연애경험	있다	78(53.4)	2.69±.38	.701(.404)	3.96±.45	2.05(.153)	3.77±.51	4.56(.034)
	없다	68(46.6)	2.63±.37		3.86±.38		3.60±.47	
한달 용돈	10만원 미만	16(11.0)	2.73±.55	1.44(.222)	3.95±.39	1.41(.233)	3.68±.61	.823(.513)
	10~20만원 미만	12(8.2)	2.42±.32		3.71±.36		3.45±.45	
	20~30만원 미만	22(15.1)	2.69±.32		3.90±.47		3.72±.45	
	30~40만원 미만	34(23.3)	2.67±.41		4.03±.41		3.74±.51	
	40만원 이상	62(42.5)	2.67±.31		3.89±.41		3.70±.49	
전공 만족도	매우 불만족	6(4.1)	2.56±.12	.215(.886)	3.75±.48	1.88(.135)	3.57±.61	3.31(0.22)
	불만족	6(4.1)	2.48±.19		3.40±.43		2.94±.28	
	보통	45(30.8)	2.61±.06		3.79±.38		3.64±.43	
	만족	60(41.1)	2.70±.04		3.95±.36		3.70±.48	
	매우 만족	29(19.9)	2.72±.06		4.18±.42		3.93±.51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135(92.5)	3.92±.42	-.121(.904)	3.68±.51	-1.24(.216)	2.66±.37	-.181(.856)
	없다	11(7.5)	3.93±.46		3.87±.35		2.68±.44	
동아리 활동 경험	있다	120(82.2)	3.95±.42	1.79(.075)	3.72±.50	1.48(.140)	2.67±.38	.508(.612)
	없다	26(17.8)	3.78±.40		3.56±.49		2.63±.36	
계	146(100.0)							

2.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도구의 신뢰도

도구의 신뢰도는 회복탄력성 .901, 대인관계능력 .907, 스트레스 대처방식 .801로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이 .7 이상으로 모두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2.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도구의 신뢰도 (N=146)

변인	문항 수	Cronbach's α
스트레스 대처방식	24	.801
회복탄력성	30	.901
대인관계능력	25	.907

3. MBTI 성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2.67(SD=.38)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3.92(SD=.42)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3.70(SD=.50)으로 나타났다.

표3. MBTI 성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기술통계 (N=146)

	N	최소값	최대값	M	SD
스트레스 대처방식	146	1.83	3.83	2.67	.38
회복탄력성	146	3.00	4.97	3.92	.42
대인관계방식	146	2.56	5.00	3.70	.50

표4. MBTI 성격유형 분포

(N=146)

구분		빈도	퍼센트	
MBTI	E	ENFJ	4	2.7
		ENFP	12	8.2
		ENTJ	3	2.1
		ENTP	6	4.1
		ESFJ	16	11.0
		ESFP	3	2.1
		ESTJ	5	3.4
		ESTP	8	5.5
	I	INFJ	7	4.8
		INFP	11	7.5
		INTJ	5	3.4
		INTP	8	5.5
		ISFJ	17	11.6
		ISFP	17	11.6
		ISTJ	12	8.2
		ISTP	12	8.2
합계	146	100.0		

응답자의 MBTI는 위와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전체 MBTI 중 I는 69.2%로 E가 30.8%로 더 낮게 측정되었다. ENFJ는 전체 중 2.7% ENFP는 8.2%, ENTJ는 2.1%, ENTP는 4.1%, ESFJ는 11.0%, ESFP는 2.1%, ESTJ는 3.4%, ESTP는 5.5%로 확인되었다. INFJ는 전체 중 4.8%, INFP는 7.5%, INTJ는 3.4%, INTP는 5.5%, ISFJ와 ISFP는 11.6%, ISTJ와 ISTP는 8.2%로 확인되었다. 즉, MBTI 중 ISFJ와 ISFP가 11.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ESFJ가 11.0%로 많았으며 ENTJ가 2.1%로 가장 적었다.

4.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차이

MBTI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확인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T=2.201, p<.01$), 회복탄력성($T=5.012, p<.001$), 대인관계능력($T=4.516, p<.001$)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차이 (N=146)

구분		N	M	SD	T	p
스트레스 대처방식	E	45	2.76	.33	2.201**	.029
	I	101	2.62	.38		
회복탄력성	E	45	4.16	.40	5.012***	.000
	I	101	3.81	.38		
대인관계능력	E	45	3.96	.49	4.516***	.000
	I	101	3.57	.46		

* $p<.05$, ** $p<.01$, *** $p<.001$

5. MBTI 유형 중 내향형과 외향형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MBTI 성격유형에서 내향형인 대상자의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r=.563,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r=.460, p<.001$)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442, p<.001$)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MBTI 내향형과 외향형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관계 (N=146)

MBTI 내향형(I)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1	.460***	.442***
회복탄력성		1	.563***
대인관계능력			1

MBTI 외향형(E)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1	.227***	.247***
회복탄력성		1	.846***
대인관계능력			1

MBTI 성격유형에서 외향형인 대상자의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 능력($r=.846, p<.001$), 스트레스 대처방식($r=.227, p<.001$)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214, p<.001$)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와 E에서 회복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 종속변수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I와 E에 따른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 차이를 규명하여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영향 요인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MBTI 에너지 방향은 주의집중 및 초점 방향에 따라 외향(Extraversion; 이하 E)-내향(Intraversion; 이하 I)으로 나누었는데 내향형(I)이(69.2%)로 외향형(E)보다(30.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현경(200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 결과 내향형(I) 43(47.3) 외향형(E) 48(52.7)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이와 달리 정현경(2007)이 연구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성향은 E(52.7%), I(47.3%)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특성, 학제 간 특성 등과 관련된 차이로 사료되며, 향후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BTI 16개 성격유형 중 ISFJ와 ISFP가 11.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ESFJ가 11.0%로 많았으며 ENTJ가 2.1%로 가장 적은 순의 분포를 보여 연구에 따라 MBTI 성격유형 분포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영미(2017)의 MBTI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ESFP형과 ISTJ형이 12%로 가장 많았고, ENPI형과 ISFP형이 10.5%로 나타났으며, INFJ형과 ENTJ형이 각각 0.7%, 0.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여 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ISFP형이 높고, ENTJ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만점에 평균 2.67(표준편차=.38)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박진아와 이은경(2011)의 연구에서 평균 2.65점, 손현정(2015) 평균 2.51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정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분석 결과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더 능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형(E)은 모든 대처능력을 고루 사용한다는 이옥주(2003)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외향형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문제해결중심 대처방식이든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이든 모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숙향(2007)의 연구에서는 선호지표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스트레스 완화와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방식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92(표준편차=.42)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홍세화(2020)의 연구에서의 3.68, Kim, Yu & Lee(201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점수가 평균 3.07점과 비교해보면 이는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여겨지며 간호대학생으로 하여 성별, 종교, 학과 만족도에 따른 관련성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분석 결과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정미(2022)의 연구에서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회복탄력성의 강화는 단순히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강화가 어려우므로 재학기간 동안 대학과 학과 자체에서 이를 개발 및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램 적용과 체험활동 등의 지원과 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0(표준편차=.50)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한 양아기(2018)의 연구결과인 3.74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대상자의 MBTI 선호지표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분석 결과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황보식(2016)의 연구에서 신체 에너지가 밖으로 넘치기 때문에 항상 외부 것에 의해 행동이 유발되고 타인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외향형(E)이 내향형(I)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실습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임상 실습 시 환자 및 보호자, 지원 부서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김남희(2019)의 연구결과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회복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포함한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다. 장숙희(2014)의 연구결과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즉, 회복탄력성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사례가 없어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김화선(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인관계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즉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수월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내적 변화를 이루고, 대인관계 형성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처방식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대인관계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에는 선호지표별 차이가 있어 간호대학생 개인이 지닌 성격유형별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C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 146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도구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Jung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Isabel Myers와 Catherine Briggs에 의해 제작되고 김정택과 심혜숙(1990)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를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번안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는 Schlein과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대인관계 변화척도)을 Lee와 Mun(1982)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하여

사용한 대인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위한 도구로는 Conner와 Davidson(2003)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백현숙 등(2010)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극복력 측정도구를 토대로 박미미와 박지원이 개발한 간호사 극복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MBTI 에너지 방향은 주의집중 및 초점 방향에 따라 외향(Extraversion; 이하E)-내향(Intraversion; 이하 I)으로 나누었는데 내향형(I)이(69.2%)로 외향형(E)보다(30.8%)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BTI 16개 성격유형 중 ISFJ와 ISFP가 11.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ESFJ가 11.0%로 많았으며 ENTJ가 2.1%로 가장 적은 순의 분포를 보였다.
2.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2.67(표준편차=.38)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평균 3.92(표준편차=.42)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3.70(표준편차=.50)으로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2.76(표준편차 0.33)으로 I의 평균 2.62(표준편차 0.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4.16(표준편차 0.40)으로 I의 평균 3.81(표준편차 0.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비교해본 결과, E의 평균은 3.96(표준편차 0.49)으로 I의 평균 3.57(표준편차 0.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MBTI I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460, p<.001$),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r=.563, p<.0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r=.442, p<.001$)과 대인관계능력 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MBTI E의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방식($r=.227, p<.001$), 회복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r=.846, p<.001$)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r=.214, p<.001$)과 대인관계능력 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I와 E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에서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I와 E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의 각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 회복탄력성,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심리 프로그램, 원예 활동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RAW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 회복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감 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비교과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Ahn JH, Yoo MH. Comparison of Academic Stress, Stress Coping and Academic Burnout between Elementary Gifted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 2014;24(2):169-189.
2. Chae MO. Empathic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Personality Typ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4):303-311.
3. Cho MK, Jeong HS.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Type A/B Personalit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2001;7(2):183-191.
4. Choi SW, Kim HS. Effects of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using MBTI on Self-acceptance, Self-esteem, and Acceptance of others of Professional Soldiers. *정신간호학회지*.2020;29(1):64-72.
5. Chae MO. Ego resilience,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5):95-103.
6. Dyer JG, McGuinness TM.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 Psychiatr Nurs*. 1996; 10:276-282. doi: 10.1016/S0883-9417(96)800
7. Han JL, Namgung EJ. The Difference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Amount and Dep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 2008;29(1):325-337.
8. Hong ES.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06; 41(2):45-67.
9. Hong SH, Park KS. A Study on the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 2002;8(3):489-500.
10. Hwang SS. A Study on the Effect of MBTI(Myers and Briggs Type Indicator) Basic Program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cience Major Students and Their Cohes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04;18(1):61-73.
11. Hong SH, Kim JS, Ju DB.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0;11(9):443-450.